

방사선 치료 후 재발한 후두암에서 p53, PCNA 발현

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이병주 · 왕수건 · 이진춘*

목적 : 조기 후두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고 재발한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전과 방사선 치료 후 재발한 동일인의 조직에서 세포의 발생, 증식,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p53 유전자와 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(PCNA)의 발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 : 1995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후두내시경, 컴퓨터 단층촬영 및 조직검사 상 후두성문암 T1 또는 T2로 진단되어 방사선치료(70.2Gy)를 시행한 후 재발하여 수술을 시행 받은 1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p53과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(PCNA)의 발현을 조사하

였다.

결과 : 방사선 치료 전에 p53의 발현이 양성인 경우가 15례중 4례(26.7%), 음성인 경우가 11례(73.3%)이었다. 그러나 재발한 암에서는 p53이 발현된 경우가 15례 중 8례(53.3%)로 증가하였고($p < 0.05$), 방사선 치료 전에 암 조직의 PCNA index는 평균 11.9%(0.2~20.8%) 이었으나 방사선 치료후 재발한 암 조직의 PCNA index는 평균 18.0(7.0~39.6%)으로 증가하였다($p < 0.05$).

결론 : 방사선치료후 재발한 후두암에서 방사선 치료전에 비해 p53과 PCNA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재발한 암이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.